

# 제31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 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정원 225명 중 154명이 참석했다.



▲ 권은오 농림부 채소특작과장은 "생약농민이 하나되어 마음만 같이 모은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



▲ 황인구씨와 이옥용씨가 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회원들이 차례로 투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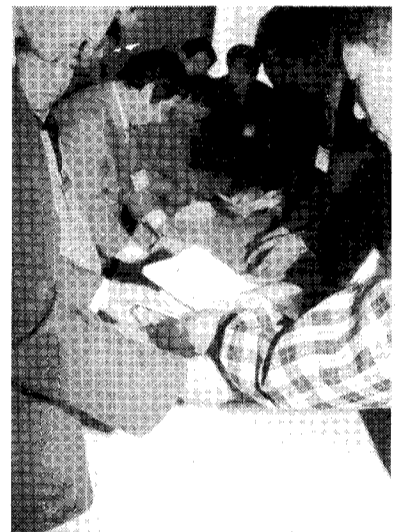
▲ 그동안 우리생약살리기에 앞장서온 회원 10명에게 임연학 회장이 협회 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 황인구 당선자에게 축하 꽃다발 전달.



▲ 농어민신문 문광운 기자에게 감사패 전달.



▲ 각 도지회 총무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 농림부 권은오 과장 격려사

○...이날 총회에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채소특작과 권은오 과장과 임현언 사무관을 비롯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 연구관, 경동약령시협회 박의진 회장, 서울시한약도매협회 최영춘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

권은오 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급조절품목임에도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는 값싼 수입약재로 인해 국내 생약생산기반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생약농민들이 하나되어 마음만 같이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갈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생산농민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3표대 44표로 압승

○...모처럼만에 치러지는 협회장 경선택제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정원 225명중 154명이 참석, 예년에 비해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 두 후보들의 10분간 열띤 정견

발표 순서를 거친후 참석자 154명중 147명이 투표한 결과 103표를 획득한 황인구 후보가 44표를 얻은 이옥용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 "다같이 힘모아 나가자"

○...황인구 신임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생약인도 이제는 기존의 농사를 유통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농업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경선 당시의 공약사항은 물론 정책자문단과 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우리 생약농업의 살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우리 협회가 생약 생산자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 도움준 회원들께 감사

○...임연학 회장은 퇴임에 앞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

고 "앞으로도 우리협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가길 바란다"고 당부.

## 사업계획 원안대로 통과

○...2000년 지출예산 2억9천9백여만원과 함께 △국내 생약생산 기반 조성 △수입한약재 불법유통 감시기능 강화 및 국산한약재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회원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강화 △한약재 산업의 인터넷 전락수립 및 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한 세부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감사기능 미약 문제제기

○...감사의 역할과 기능미약에 대한 사항은 매년 총회때마다 제기돼 온 회원들의 불만사항. 올해 역시 감사보고 과정에서 회원들은 '실물감사'와 '수시감사' 실시로 감사의 기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감사로서 최선다했다"

○...감사보고를 맡은 성백덕 감사는 이에대해 "1년동안 이루어진 일을 이틀동안 감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회계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탓으로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주어진 시간안에 그래도 감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몇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피력. 한편으로는 감사의 역할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감사의 현 기능이 너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신임 감사 선출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번 회기로 성백덕 감사와 허영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선출이 있었으며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경북 영주시 김용한 회원과 전라북도 군산시 윤영환 회원이 신임 감사로 추대됨으로서 앞으로 2년 임기동안 맡고 탈맡은 감사직을 맡아 수행하게 됐다.